

“지역의 화합과 종교인들의 자긍심 회복”

하늘문화평화광복 전북지부, 제1회 '익산종교인 대화의 광장' 토론회 성료

(사)하늘문화평화광복(HWPL) 전북지부는 최근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세미나실에서 제1회 익산종교인 대화의 광장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평화'로써 세계적인 평화와 남북 평화통일에 대한 종교인들의 토론회였다. HWPL은 비영리 NGO단체로 평화를 세계적으로 외치며 국제법 제정을 비롯해 종교경서비교, 평화교육, 자원봉사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에 안정근 경서위원 및 신천지측 정재성 익산강사, 가정연합측 나인환목사가 참석해 70여명의 청중들과 함께 했다.

평화의 주제는 첫 만남을 통해 교파간에 서로 마음을 열고 사회적 인식을 이해하지는 취지여서 '평화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와 함께 '평화의 세상을 위해 실천방안에 대해 두 교단에서 발표하게 됐다.

신천지 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각자의 평화의 씨앗을 존중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 봉사, 문화, 선교 등으로 실천하는 것이 평화의 답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가정연합(통일교)측은 "평화의 답은 자연에 있다"며 "사랑과 배려가 있는 가정이 기본이지만 종교인들의 성문화 및 돈사람 등이 타락과 파멸의 원인이다"며 꼬집어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가정연합측은 "마태복음 15장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모공경'으로 믿음을 달아본다"며 "평화를 실현할 재림주는 참 부모 실천에 있으므로 기성 교회의 소멸도 점쳐진다"라고 피력



HWPL 전북지부는 최근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세미나실에서 제1회 익산종교인 대화의 광장 토론회를 가졌다.

했다. 이어 청중들의 "경서에서의 평화의 답을 요청한다"에 대해서는 가정연합측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성경을 풀수 없다며 각자 수행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직접 답을 구해야 한다"며 "교리비교의 프레임에 갇치지 말고 새로운 공유인식과 신이님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신천지 측은 "해방하는 마귀를 잡으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되어 자연히 평화가 성취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평화에 대해 "경서에서 보다는 종교인들의 대화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와 국가가 평화를 이룬다"며 "사랑과 이해가 급선무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안 좌장은 "상호 비방 및 의심 보다는 평화를 소망하는 공통 목적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타교단도 동참하고 다양한 주제로 종교인 토론회가 되어 지역의 화합과 종교인들의 자긍심도 회복하자"라고 매듭을 지었다.

/익산=장영원 기자

남원소방서, 유해동물 공동대응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남원소방서는 최근 2층 회의실에서 남원시 축산과와 환경과 및 유해동물 포획 관계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동물 및 유기견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황별, 유형별 동물포획 출동 관련 공동대응 방안, 공휴일 및 야간신고접수 시 출동체계정립 및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 관계기관 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을 수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산내면, '정읍희망지킴이' 복지역량강화 교육 실시

산내면이 최근 목정호 마실길 펜션(대표 홍규식)에서 정읍희망지킴이 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지난달 22일 위촉된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맡은 정읍시자원봉사센터 김명희 사무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청 기획예산실·응동면, 감자 수확 일손 돕기 나서

정읍시청 기획예산실과 응동면 직원 20여 명은 지난 21일 응동면 비봉리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직원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장에서 감자를 수확했다. 이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농가주는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직원들의 도움으로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직원은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대 정선일 교수 연구팀, 국제전문학술지서 최다 피인용 논문상 수상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정선일 교수 연구팀이 JSBBA의 국제학술지, BBB가 선정하는 2017~2018년 최다 피인용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BBB(Bioscience, Biotechnology & Biochemistry)는 일본 생명과학, 생명공학과 농화학회가 통합하여(Japan Society for Bioscience, Biotechnology, and Agrochemistry : JSBBA)발행한 SCI급 국제전문학술지로 동물, 식물과 미생물에 의해서 발현되는 생명현상을 분석하는 논문을 발행한다.

BBB는 2016년에 335편, 2018년에는 328편의 논문이 발행하였으며, 피인용지수가 각각 11,292회, 12,186회로 SCI급의 수준 높은 생명과학 저널이다.

정선일 교수 연구팀은 2016년, BBB에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myricetin from Diospyros lotus through suppression of NF-κB and STAT1 activation and Nrf2-mediated HO-1 induction in lipopolysaccharide-stimulated RAW264.7 macrophages'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6년간의 연구 성과중 하나로, 고욤나무 잎에서 나오는 미리세틴(myricetin)이 매우 우수한 항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장 교수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서 미리세틴(myricetin)이 설치류 면역세포와 생체에서 Nrf2 매개 HO-1(Hemoxygenase-1)의 유도과 염증 유도 전사인자인 NF-κB와 STAT1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정선일 교수 연구팀은 지금까지 SCI급 학술지와 국내 전문학술지에 약 1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해 왔으며, 산업 현장에 활용되는 특허도 약 70여 건을 등록 및 출원한 바 있다. 장 교수 연구팀은 현재도 생활 습관병과 관련한 인체질환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천연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군산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상황 설명회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관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실시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열린 이번 설명회는 강임준 서장 등 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제천·경남 밀양 화재를 계기로 관내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유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 처리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진행상황 공유와 향후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군산 관내 총 4,213동의 대상 중 현재까지 2,789개동(66.2%)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조사대상 중 1,857개동(67.1%)이 안전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한 상태이며 소방분야의 중대한 위반사항은 일건 및 과태료 처분(9건)을 실시했으며, 건축분야는 관계기관에 기관통보(188건)를 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남원시, 음주운전 예방 간담회 및 면담 실시

남원경찰서는 지난 21일 청문감사관 주제로 임직 5년 미만 신입직원 20여명과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6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단속기준(기준 0.05%에서 0.03%로 상향) 및 처벌기준이 강화 되는 것에 대한 경찰관으로서 임하여야 하는 자세를 전달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가운데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위해 최근 의무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서, 청소년 사랑실천 이웃리치 활동 펼쳐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최근 일시터와 함께 학교 가정 밖 청소년 등 사회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보듬기 위한 청소년 이웃리치 현장 활동을 펼쳤다.


이번 길거리 활동은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위 기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 하 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들과 일시터가 합동으로 마음을 모아 실시하였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캐мп페인